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배포 : 2024년 9월 26일(목)

AI 대전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민 · 관 원팀의 ‘국가 총력전’ 선포

- 윤석열 대통령,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 개최 -
-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 -
- ‘국가 AI 전략’ 정책 방향, 민간 부문 AI 투자계획, 산업 AX 전환 방안 등 논의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26, 목),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8년 전 세기의 바둑 대국을 펼쳤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인공지능 대전환,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오늘 행사는 국가 AI 정책 수립의 구심점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을 널리 알리고 국가 AI 비전과 청사진을 국민께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4월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계획’을 처음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이끌면서 AI 국가전략을 직접 챙기고,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30명의 민간위원과 주요 부처의 장

관급 정부위원 10명,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 및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AI 관련 범국가적 혁신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민관 원팀의 구심점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출범식에서 대통령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들 중에 대표로 부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을 위촉했으며, 기술·혁신분과위원장으로 ▲조성배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 산업·공공분과위원장으로 ▲고진 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인재·인프라분과위원장으로 ▲김선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법·제도분과위원장으로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이사, 안전·신뢰분과위원장으로 ▲오혜연 KAIST 전산학부 교수를 위촉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원대한 비전과 함께, 이를 이뤄나가기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선두에서 이끌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AI가 국가 역량과 경제성장을 좌우하고 경제, 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AI기술 및 주도권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은 미래 AI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자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한-미 AI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한미가 함께 AI를 공동연구개발하는 ‘글로벌 AI 프론티어랩’도 개소했음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인권침해 사례 등 디지털 격차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이를 국제사회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디지털 심화 시대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 문제를 제기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는 등 ‘디지털 규범’ 정립에 앞장서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에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안전, 혁신, 포용의 3대 원칙을 담은 ‘서울 선언’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민·관 합작투자를 통해 구축하고, 산업과 사회 전반에 AI 전환을 촉진해 민간의 인공지능 분야 투자 확대를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핵심 가치는 지키면서도, 혁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연구개발과 인프라, 법·제도 등 모든 분야에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염재호 부위원장이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비전 및 미션’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 AI 전략」 정책 방향’을,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가 ‘민간 부문 AI 투자계획 및 정책제언’을, 마지막으로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산업 AX 전환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대한민국의 AI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간 부문 AI 투자 확대 지원, ▲AI시대 인프라·인재 확보, ▲국가 AX 전면화, ▲AI 안전·안보 확보 추진, ▲데이터 저작권 및 개인정보 문제 해결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끝>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개요 및 민간위원 명단 첨부

참고1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개요

□ 배 경

- AI G3 도약을 위한 국가역량 결집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민간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구성 추진

★ (대통령, '24.4.9) "국가AI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여 부처 협업 및 민간 참여", "투자 우선순위 정하고 장애요소 제거", "조직·직제 만들어 개최할 것"(반도체 현안 점검회의)

□ 주요 내용(안)

- (구성) 위원장(대통령) 포함 민·관 각 부문 대표자로 45명 이내로 구성
 - (부위원장) AI 분야 최고 민간전문가 1인
 -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 국가안보실 제3차장
 - (민간위원) 전문성, 비즈니스 경험 등을 보유한 전문가로 위촉(임기 2년)
 - (정부위원) AI 관련 주요 부처(기재·교육·과기정통·외교·행안·문체·산업부, 방통위, 개인정보위, 디플정위) 장관
- ※ 당연직 위원이 아니더라도 사안에 따라 관계부처 장관 참여 가능
- (역할·기능) R&D, 투자전략, 전문인력 양성, 규제개선, 교육·노동 변화 대응, 국익보호 및 AI경제안보 등 국가 AI 정책 전반 심의·의결
- (분과위 등) 분야별 심층 검토를 위해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또는 자문그룹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 지원
- (지원단) 위원회 업무 및 운영 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 지원단 구성

참고2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민간위원 (총 30명)

※ 부위원장 이하 이름 가나다 순

< 부위원장 >

성명	직 위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

< 위원 >

성명	직 위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
고진	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김민기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김상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파트너변호사
김선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김선주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
김성태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 대학원 교수
김승환	아모레퍼시픽 대표
김영섭	KT 대표
김장우	망고부스트 대표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전자 공학부 교수

성명	직 위
류석영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배영자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유희준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오혜연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
이범규	팀스파르타 대표
이인석	연세대 생명공학과 교수
임종인	대통령비서실 사이버특별 보좌관
전경훈	삼성전자 DX부문 CTO
전병곤	프랜들리AI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조성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
조준희	한국SW 산업협회장
하태경	보험연수원 원장
한순구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